

해남군, 지역 소멸위기 극복 팔 걷었다

대응기금 228억 포함 353억 투입 생활인프라 확충 등 10개 과제 추진 귀촌·청년 일자리...인구위기 대응

해남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28억원을 새로 확보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해남군은 기존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353억원을 투입, 땅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라는 비전 아래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군민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인프라 구축과 함께 귀향·귀촌인을 겨냥한 외부인구 유입정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 활력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는 18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

램을 운영하게 된다. 마을 브랜드개발 사업과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푸드레시피 개발 등 특화된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산이면에는 공유주방과 대형 조리 주방시설 등을 조성하는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를 노리는 사업도 펼친다.

땅끝 빈집-농지은행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귀농·귀촌 후 주택마련과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주거지와 농지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복일면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올해는 계곡면과 현산면의 4개 학교로 확대한다. 전학생과 가족이 지역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 리모델링 비용과 주민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형 농촌유학 사업으로 농촌 유학을 통해 단기 거주할 학생과 가족을 위한 거주기반을 마련을 위해 모듈형 주택 신축과 빈집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스테이션-H(솔라지도 스마트 쉐리지) 조성사업은 솔라지도 기업도시 내 다양한 직종의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도시 입주업체의 취업으로 연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교육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옛 화산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공간인 해남예술인촌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상담소와 청년농업인을 위한 가공장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부지내에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다양한 평형대를 갖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 1인 가구에서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자질없이 추진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있는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22일 '찾아가는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영광군이 오는 22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보건소 보건교육관 3층에서 '찾아가는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사전 접수한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저시력을 유발하는 백내장, 녹내장 등과 같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평소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고, 만성질환과 저시력 원인에 대한 증세, 예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황반변성 자가검사, 시력검사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한 후 전문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영광군은 실명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백내장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눈 수술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방문보건팀(061-350-4696)으로 하면 된다. /영광=이종훈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 성과

올 응시 청소년 72명 중 71명 합격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이 성과를 냈다.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2022년 검정고시'에 응시한 청소년 72명 중 71명(합격률 98.6%)이 합격했다.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공간 및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주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초·중·고등과정별로 운영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튜터링을 통한 1대1 개인 학습 멘토링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3차 올레클래스는 2023년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검정고시 교재 및 개인별 인터넷 강의, 자율 학습, 1대1 교과지도 등을 지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학습 외에도 학교 밖 진로진학지도, 건강검진, 직업체험, 취업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무안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98명...2년간 통신비도 무료

무안군이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9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사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 위치 알림, 안심존 이탈시 보호자 알림, 긴급호출 등 여러 기능이 가능한 GPS 탑재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기기는 손목시계 형태로 줄을 연결해 착용하거나 신발 깔창에 장착할 수도 있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 지원대상에게는 2년간 통신비가 무료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군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매년 실종사고 발생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여성교육 취미교양과정 수강생 모집

영암군이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2022년 여성교육 제3기 취미교양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성교육 취미교양과정'은 여성들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4월에 제1기가 개강해 14과목 운영, 117명이 수료했고 현재 제2기에는 16과목 운영, 148명이 수강 중이다.

이번 제3기 취미교양과정은 지역 여성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직장과 농사일로 바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교육을 확대운영한다. 신규로 디지털 댄스, 원예테라피 등 5과목을 추가해 총 21개

과목으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영암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성인 여성으로 군 누리집 신청 서식을 참고해 16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누리집(yeongam.go.kr)을 참고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팀(061-470-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야간반, 신규 과목 대한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데 하나의 계기점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여성 행복프로그램을 강화해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완도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 공모' 선정

2025년까지 108억원 투입

해양바이오 종사자 주택 건립

완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은 지역 특화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총 10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신지면 대곡리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전용 공공 임대주택 68가구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산업인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거점단

지 조성하고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육성을 위한 연구자 유입,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신지면 일원에 해양지유센터,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해양지유산업 기반시설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등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해양바이오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